“AI시대 변화 이끈다”… 신협 실무책임자 550명 광주 집결

38년만에 전남광주서 전국대회… 고영철 회장 특강
현장 리더십·건전경영 머리 맞대… 헌혈증 기부 상생



신협중앙회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9대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신협 실무책임자 550여명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모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리더십과 미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등 금융산업의 변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신협의 협동조합 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신협중앙회는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9대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비상하라, 신협!’을 주제로 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858개 신협의 실무책임자 550여명과 신협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는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박균택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격려사와 축사, 표창장 수여, 기부금 전달 등이 이어졌다.

전남광주 지역에서 전국대회가 열린 것은 38년 만으로, 전국 신협의 실무를 책임지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넘어 신협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현장 리더십과 AI 시대의 변화·혁신, 사회적 책임과 나눔, 청렴 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금융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실무책임자들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고영철 회장은 ‘현장에서 배우는 리더십’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실무책임자를 단순히 조합의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합의 오늘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라며 “특히 위기 상황일수록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조합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도 함께할 수 있는 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부실을 감추거나 문제를 미루기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사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직원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위기를 피하기보다 기본을 지키며 돌파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사람 중심의 조직문화도 강조했다. 고 회장은 “실무책임자가 원칙을 지키면 직원들도 원칙을 지키고, 리더가 사람을 존중하면 조직 전체에 존중의 문화가 만들어진다”며 “잘못을 바로잡는 동시에 다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 역시 리더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로 건전경영과 변화에 대한 준비, 중앙회와 조합의 동행을 꼽았다. 신협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두려움을 갖기보다 먼저 배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조합원과 지역사회와의 신뢰가 신협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조합원의 삶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지역이 살아야 조합이 성장하고, 조합이 튼튼해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I 시대의 변화 역시 이번 대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미경 강사는 ‘AI시대 자기혁신과 변화 그리고 소통’을 주제로 강연하며 AI가 금융환경과 일하는 방식에 가져올 변화를 짚었다. 자기혁신과 조직 내 소통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의 역할도 강조했다.

신협이 추구해온 나눔과 상생의 가치도 실천했다.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는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헌혈증서를 기부했다.

실무책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헌혈증서 기부 캠페인은 올해로 13년째다. 전국 실무책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이어지며 신협의 협동조합 정신을 실천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김환수 전국실무책임자협의회 회장은 “이번 전국대회가 전국의 실무책임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신협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AI 시대의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나눔과 청렴이라는 신협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리더가 돼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최근 오비맥주 봉사단이 몽골 식목일을 앞두고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에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오비맥주, 몽골 ‘카스 희망의 숲’에 방풍림 식재

17년째 사막화 방지 활동…UNCCD ‘생명의 토지상’ 수상

오비맥주는 최근 국제환경단체 푸른아시아(대표 손봉호)와 함께 몽골 ‘카스 희망의 숲’에 방풍림 250그루를 심는 사막화 방지 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카스 희망의 숲’은 동북아시아 지역 미세먼지와 황사의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를 심는 오비맥주의 대규모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기후변화로 인한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국제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와 협력해 2010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과 사막화 방지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받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 ‘2014 생명의 토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오비맥주는 몽골 식목일(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앞두고 푸른아시아 관계자와 몽골 대학생 봉사단, 현지 주민 50여 명과 함께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 비술나무를 식재하고 물을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비술나무는 건조하고 추운 기후에 강하고 가축에 의한 훼손도 적어, 조림지에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오비맥주는 현재까지 방풍림과 유실수 약 4만7250그루를 심었다.

오비맥주는 조림 사업 이외에도 사막화로 생계 기반을 잃은 몽골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현지 주민들은 오비맥주가 심은 유실수를 재배·관리하고 수확한 열매를 주스, 차, 잼, 화장품 등으로 가공·판매하며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희망의 숲은 17년 동안 이어온 오비맥주의 대표 환경 프로젝트”라며 “사막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자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사운드파크 X 피크뮤직 페스티벌’ 열린다

9~10일 피크뮤직홀·사직공원 무료 공연…넬 등 참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광주음악창작소 피크뮤직홀과 사직공원 일원에서 ‘2026 광주 사운드파크 X 피크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피크뮤직페스티벌을 연계한 행사로, 모든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온라인 홍보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마련한 우선 입장 예매권 500매는 사전 판매 시작 1분 만에 매진됐다.

첫날인 9일에는 광주음악창작소 피크뮤직홀에서 지역 간 음악 교류 공연이 열린다. 광주음악창작소가 육성한 더티라콘과 테이퍼드를 비롯해 부산 세이수미, 경남 잔물결, 전북 커런트무드 등이 무대에 오른다.

10일에는 사직공원에서 밴드 넬(NELL)을 비롯해 극동아시아타이거즈, 신인류, 더픽스, 세기말 등이 공연한다. 광주음악창작소가 육성한 무드리스트, 투파이브, 예담 등 지역 뮤지션도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과 함께 사직동·양림동 일대 골목상권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관람객이 인근 상가를 찾아가는 ‘보물지도 찾기’ 이벤트와 함께 GICON과 호남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2026 대학-지역사회 커뮤니버시티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 상점 이용 영수증을 인증하면 축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과 플리마켓,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입주기업 홍보 부스, 관객 참여형 부스 등도 마련된다.

이번 페스티벌에 대한 세부 정보는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공식 인스타그램(@gj____peakmusic)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